

제 158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미시마 유키오란 프리즘을 통해 본 '전후일본'

강연자: 남상욱 (南相旭)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남상욱 선임연구원의 세미나가 5월 7일 화요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미시마 유키오란 프리즘을 통해 본 '전후일본'이라는 주제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전후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인문학자로서 많은 고민했다고 밝힌 남상욱 선임연구원은 일본에서 박사과정에 수학 중일 당시 유행했던 연구 방식이 '근대'라는 관점을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실질적 근원을 메이지 유신으로 상정하고 그 이후의 역사적 연속성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전후적 문제들의 기원을 일본이 '근대성'을 획득하는 방식에서 찾으려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서구'와 '동양'이라는 참조항이 존재하고, 이는 1980년 이후 후기 식민주의와 근대성 논의 속에서 활발해 진행되었다. 반면, 1955년 이후 단발적으로 논의되었다가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된 '전후'라는 틀로 접근하였을 때는 실질적 근원을 1945년/1952년 이후로 상정하고 역사적 단절의 경험을 강조한다. 또한 전후적 문제들의 기원을 전후 처리 방식과 '점령'의 체험에서 찾으려 하고 '미국'과 냉전구도가 참조항이 된다.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는 일본의 극우파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평범한 한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우파 작가의 작품을 읽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국'이라는 작품을 읽고 주인공의 할복 장면에서 화자가 말하는 아픔이 과도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남상욱 연구원은 이야기하였다. 이는 리얼리즘이라기 하기보다 오히려 묘사의 과잉을 드러내는 반 리얼리즘이라고 판단되었고, 전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일본의 대표작가 나쓰메 소우세키는 근대적 관점에서 문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미시마 유키오는 전후라는 관점에서 문화론을 썼다. 미시마는 전후 일본은 전전 일본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작가이다. 이는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당연하다는 논점에서 본다면 전후 일본의 헌법이 바뀌고, 국토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쓰는 언어가 바뀌지 않았고, 일본 내에서 생활하는데는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상욱 연구원은 단절론에 주목하면서 오늘날이 어떻게 과거를 소환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후 담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자마자 등장하였고, 이는 매우 어둡고 감정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었다. '근대'라는 큰 틀로 바라보았을 때, '전후'라는 틀은 매우 협소하지만 강력하며 인간을 왜소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미시마는 25년 쇼와 연호가 시작된 해에 태어나는 등 천황과 관련이 많았다.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어지기 전 그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브라질, 파리, 그리스, 이태리 등 세계일주를 경험했는데 당시 세계 일주가 흔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세계의 정보를 일본에 알려주는 엘리트 작가라는 인식이 생겼다. 56년 '금각사'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 소설은 영어로 번역되면서 미시마는 일본과 미국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됨과 동시에 세계문학가가 되었다. 61년부터는 정치적 성향이 이상해지는데 우국과 같은 극우적 성향을 드러낸 작품에서는 남녀 동반 할복자살이라는 소재를 선택했다. 이윽고 70년 자위대 이치가야 주둔지 가서 쿠데타 같이 일으키자며 일장연설을 하지만 군인들의 야유를 받고 총감실에서 할복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친다.

미시마 유키오의 사진 중에서 근육질의 나체로 일본도를 들고 있는 사진이 바로 미시마가 표상하고 싶어했던 일본의 이미지이다. 다른 작가들이 자신이 자유로우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미시마는 법과 문화가 인간을 규정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려면 이것들을 깨뜨려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미시마는 상류층 집안 출신으로 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공간에서 성장했고, 자신의 작품이 미국과 계약을 맺은 후에도 초청을 받아 상류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시마 눈에 비친 1940-45의 일본 상류사회 속의 미국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의 몇몇 소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미국 복장하고 있다.. 내(화자)가 어렸을 때는 유럽 복장하고 있다.” “아이가 시끄러우면 엄마는 양키영어로 꾸짖는다” 등 미국의 독립심 키우는 교육방식을 행하고 뿌듯해하는 일본 여성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인 엄마들의 정신세계에서 미국화를 발견하고 왜 귀족을 버리고 싸구려 부르주아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냐며 비난한다. 이것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미국을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라는 소설은 미의 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점령기를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 사실 전전에는 금각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미는 좀더 단아한 미였고, 화려한 금각사는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자 금각사가 교토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되어버렸다. 초기 평면적이었던 '점령'과 '미국'의 이해가 1956년 이후 입체적으로 바뀌어 간 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출현하게 되고, 가족중심주의 등 '대중'이 출현하게 된다. 1960년대 초에는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의 소외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국일본'을 향한 향수와 더불어 사회불만 세력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근대와 전후 연속성을 일본연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연이었다. 일본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전후가 끝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전후라는 것은 미국에 가지게 된 일종의 심리적, 문화적 측면의 콤플렉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어쩌면 전후가 끝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미국식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변:

미시마의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미국식 생활양식은 다양하다. 여기에는 호모섹슈얼도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60년대 소설에 주로 많이 묘사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전후 문제에 관해서는 동아시아 틀로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만약 아베 총리와는 다른 성향의 지도자가 계속 집권했으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화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일본 전후를 한국의 해방과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며 같은 패전국으로서 독일의 문제도 함께 비교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을 듯 하다.